

신당, 당원중심이나 시민참여나

민주-새정치, 통합신당 모델 놓고 줄다리기 지방선거 공천 룰에도 상당한 영향 미칠 듯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인 통합 신당의 모델이 '당원중심정당'이나, '시민참여정당'이냐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떠한 모델로 통합 신당이 출범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 룰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당원중심정당 모델은 공천 등 주요 결정에서 당원의 의사를 최우선하는 반면, 시민참여정당 모델은 공천 등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방식을 채택하는 등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그동안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당원중심정당'을 지향해 왔다. 김한길 대표는 "공천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철저히 당원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으로 당권을 잡았으며 기초단체장 무공천 당론도 '전당원 투표'로 정한 바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시민참여정당 모델

을 선호하고 있다.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이 정당 운영에 있어 당원에 국한하는 폐쇄형보다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개방형이 대세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통합 신당의 모델이 당비를 내는 기간당원과 시민참여의 두 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일각에서는 통합 신당이 시민 참여형으로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민주당 정청래, 최민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신당, 온-오프 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승부하자'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 고문은 "시민참여형 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내걸었던 약속"이라며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제

안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온오프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갔을 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하지 말자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 신당이 어떠한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민참여형에 방점이 찍힐 경우,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후보를 공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식의 공천 룰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박지원 의원은 광주 시장 후보 공천 룰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치러 흥행과 함께 통합신당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면, 통합신당이 당원과 시민 참여를 함께 하는 모델로 갈 경우, 기존의 국민참여경선(당원50%+시민50%) 방향으로 공천 룰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당원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당원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시민 참여를 대폭 늘이는 공천 룰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한길(왼쪽 다섯 번째부터)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열린 새정치연합위원회 회의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현 서울 강동구청장 열세 새누리 비호남권 기초선거 압승 전망

野 '무공천' 여론조사해보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기초단체장 후보 무공천 방침에 따라 기존 야권 후보가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새누리당이 비호남 기초단체 선거를 싹쓸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1일 저녁 서울 강동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 13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현재는 민주당 소속인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새누리당 후보에

10%포인트 안팎의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최용호 후보를 내세운 3자 대결 가상 지지를 조사에서 최 후보 46.2%, 무소속 표지를 한 이 구청장 35.4%, 또 다른 무소속의 권태웅 후보 9.9%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임동규 후보를 내세웠을 경우에도 임 후보 43.8%, 무소속 이 구청장 37.9%, 권후보 10.2%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이다. 리서치뷰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에 대한 직무평가 결과, 이 구청장

은 '잘한다'는 답변을 63.7% 얻었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5.7%에 불과해 25개 구청장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재출마시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이 구청장은 '지지(48.3%) vs 다른 후보(37.3%)'로 재지지도 지수(지지 ÷ 다른 후보) 1.29를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즉,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청장이 이처럼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면 다른 지역에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는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 공천을 강행하고 제3의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한 명이라도 출마할 경우 견고한 보수층 결집력 등을 감안할 때 비호남 기초단체 선거는 새누리당이 싹쓸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

강운태, 지역농가 '안심꾸러미' 회원 가입

재선에 도전하는 강운태 광주시장은 13일 지역농가에서 생산된 신선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안심꾸러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시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의 안정된 소득도 확보해주는 안심꾸러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심꾸러미'는 지난해 10월부터 농협광주지역본부와 평동농협이 회원을 모집해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을 배송 당일 수확해 꾸러미로 포장, 다음날 가정에서 신선한 상태로 받아볼 수 있어 맞벌이 주부, 싱글 회사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주승용, '전남 교통문화 향상' 정책토론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은 13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전남지역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주 의원은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국평균의 2배가 넘고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교통문화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서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진형 속도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선진형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조호권 "챔피언스 필드 활용방안 고민 필요"

광주 북구청장에 도전하는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북구5선거구)은 13일 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문화·예술·공연 자원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 체육시설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신모델을 제안했다. 조 의장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는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새야구장의 활성화 방안과 인근 중외문화예술센터를 활용한 광주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 및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우진, 공명선거 실천 협약·합동토론 제안

임우진 광주시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3일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과 합동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임 후보는 이날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입자 진영에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례가 감지되는 등 벌써 혼탁선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저질 구태 행위는 새정치 실현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만을 조장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만근 "양림동 역사마을 광주 문화터미널로"

김만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3일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터미널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3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훼손과 경관침해 등 사상 최악의 역사 복원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 건축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우려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문화와 스토리텔링이 만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진 "수도권에 광산영재관 건립 추진"

서종진 관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3일 "대한민국 미래도시 광산"을 위해 수도권에 '광산영재관'(가칭)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광산영재관 건립과 관련해 "내무부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근무시설부 터 호남인사 소외와 더불어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또 서 예비후보는 "광산구에 7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남도화속의 상황으로는 지역민의 열망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요원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진선거 "용봉IC 최우선 개통 노력"

광주 북구청장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진선거 의원은 13일 "북구 최대속원사업인 용봉IC의 최우선 개통과 상습지정체구간인 호남고속도로의 8차로 확장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 호남고속도로 용봉IC를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확충하겠다"면서 "현재 호남고속도로 4차선 도로에 하루 10만 대 수준의 교통량이 왕복하면서 고질적인 상습지정체 구간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 정도의 통행량은 8차로 수준의 통행량에 육박하는 만큼, 8차선 도로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오성·강은미 발의 '아동가정 조례' 통과

재선에 도전하는 조오성(왼쪽)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강은미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가 13일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총26개소인데 반해, 지원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공통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평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평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1층~지상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1층~지상8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야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j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